

#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May 11

• 갈라디아서 2:20; 역대상 29:11-12

**십자가와 나의 죽음이 향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전 영역을 주님께 내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영과 혼과 몸으로 최선을 다해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시종을 맡깁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께 상황과 형편의 시종을 맡깁니다. 나라는 존재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세계 안에 있습니다. ‘나와 너와 우리’가 창조 순리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마 6:33). 신앙생활은 나의 제자리와 가치 그리고 나의 능력과 사명을 하나님 나라와 그 뜻 안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실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뜻이 최선이며 최상임을 믿으십시오. 천지 만물과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대상 29:11-12).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는 전 과정을 가리킵니다. 나는 하나님아 아니며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nothing’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합니까?

- ① 모든 것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 맡깁니까?
- ②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